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3, March 31 (2023), pp.387-398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3.31

Exploring Tolstoy's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Theory Focusing on the Animated Movie “Coco”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중심으로 톨스토이의 실존주의적 삶과 죽음 이론 탐구

Zhou Yufeng[1], Won-Ho Choi[2]

조우위펑 [1], 최원호 [2]

[1] *Doctoral Course, Dept. of Visual Contents, Dongseo University, South Korea, 467874152@qq.com*
[2] *Professor, Dept. of Visual Contents, Dongseo University, South Korea, choiwh@dongseo.ac.kr*

Corresponding author: Won-Ho Choi

Abstract: The ethical research on life and death is an important subjec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People in different stages have different views on life and death. Because of the different imagination and view of the concept of life and death, this phenomenon leads to a large number of theories related to the study of life and death. Tolstoy, Heidegger, Sartre and Camus, the pioneers of existentialist philosophy, all made theoretical elaboration on the concept of life and death. The theory of life and death view of existentialist philosophy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life, and can prompt people to more actively pursue the meaning of survival and dig the value of life in the understanding of death. As one of the contemporary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video content can be recreated artistically by recording and reconstructing human life and applying human thought and civilization to audiovisual language. In this regard, based on Tolstoy's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theory, researchers try to study how to express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life and death in human development in video works, and find out the internal connection between Tolstoy's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and contemporary social thoughts by combining the expression form of video art. By analyzing the existence of death, memory and love expressed in the movie Coco, this paper explores the ultimate existence form of life in the current society.

Keywords: Life, Death, Existentialism, Tolstoy, View of Life and Death

요약: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는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서 생사 관념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듯 생사 관념에 대한 서로 다른 상상과 견해로 인해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론과 학설은 무수히 다양하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톨스토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 등은 모두 삶과 죽음의 개념에 대해 연구했으며, 특히 실존주의 철학의 생사관 이론은 생명을 인식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 생존의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한다. 영상은 예술적 표현 형식을 통해 인류에 대한 기록과 재구성의 방법으로 인류의 사상과 문명을 드러낸단. 본 연구에서는 톨스토이의 실존주의 생사관 이론을 바탕으로

Received: November 15, 2022; 1st Review Result: December 30, 2022; 2nd Review Result: January 29, 2023
Accepted: February 28, 2023

Copyright ⓒ 2023 KCTRS

영상 작품에서 표현된 생사의 개념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 <코코>에서 드러난 죽음, 기억, 사랑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탐구하고자 한다.

핵심어: 삶, 죽음, 실존주의, 톨스토이, 생사관

1. 서론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사람은 자신이 죽음을 통해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죽음의 이러한 절대적인 신비성과 불가시성은 인간의 감성 능력과 지성 능력에 대한 무력함을 보여준다. 실존주의 철학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톨스토이의 생사 문제에 대한 사고는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생명에 대한 그의 허무함은 삶에 환멸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인 것이다. 그의 생사관은 특별하다. 톨스토이의 실존주의 생사관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생명의 허무와 무의미에 대항하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2.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생사관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존재에 주목하는 철학이며, 동시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탐색에서 사고를 확장시킨다. 죽음을 직면하고 의미 세계를 중시함으로써 형성된 철학 형태로서 실존주의는 죽음의 기반 위에서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자아를 탐구하도록 개척하는 “창조와 발전의 가능성”이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2.1 삶과 죽음의 대치와 화해

실존주의에서는 죽음의 궁극성과 필연성을 그 철학의 전제로 하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나의 존재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직면를 탐구한다. 죽음을 통해 삶을 관찰하고, 죽음과 삶을 통해 생명에 대해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 죽음과 생명의 존재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라고 말하는데, 존재는 “사람”이라는 형식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1]. 그는 이때 “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존재인 만큼, 죽음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태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존재와 시간>을 통해“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를 정의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혼돈으로 인한 “무”에서부터 “유”까지의 존재와 의미를 증명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는 그 존재의 전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그 책임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선행”해야만 인간의 존재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 따라서 하이데거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초조해서는 안되며, 죽음을 직시하고 인생의 의미를 통해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만한 삶으로 죽음의 도래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통해 인생에 종말과 평가를 내리게 할 것을

 Copyright ⓒ 2023 KCTRS

요구했다. 즉, 죽음을 “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자”와 “이번 생”의 동력으로 확장하여 죽음에 생존론의 의미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 던져져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 생명의 종결로 가는 길에서 인간은 먼저 생명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존재에 대한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강한 증명이며, 삶과 죽음을 융화하도록 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카뮈는 생동의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대치를 해소하고, 인간이 죽음에 직면할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과 격정, 그리고 희망을 표현했다. 그는 세상은 터무니없고 무의미하며, 죽음은 모든 사람의 결말에 해당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속에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 세계나 내세에 거는 희망에 반대하며, 오직 삶만이 진실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저서 <시시포스의 희망>을 통해 시시포스가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온 것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냈다. 이러한 시시포스의 행위는 신들을 분노하게 했고, 신들은 밤낮없이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도록 그를 징벌했으며, 돌은 언제나 신들의 뜻에 따라 산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시시포스는 자신이 처한 운명에 주저하지 않고, 헛된 운반 행위를 반복했다. 여기서 신들에 대항한 시시포스의 운명 항쟁은 인류가 보내는 죽음에 대한 저항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카뮈는 이런 저항 정신에 대해 깊은 찬양을 보내면서, 시시포스는 그 특유의 방식으로 징벌에 대한 멸시를 표현했으며, 그의 반복된 행위는 신들이 자신에게 준 운명에 대한 초월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카뮈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저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는 순간, 마치 시시포스가 몸을 바쳐 큰 돌을 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비록 그의 숙명이지만 이러한 동작 또한 바로 그 자신의 일생을 묘사한 것이다.[3].

[표 1] 실존주의적 생사관

[Table 1]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Heidegger's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Existence precedes essence	Human existence is "present"	Sein zum Tode (죽음에 이르는 존재)

Camus' existentialist view of life and death		
The meaninglessness of individual life	The resistance of individual life	Resistance is the embodiment of the meaning of life

죽음은 생명을 가로막았지만, 이는 또한 생명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실존주의는 죽음의 공포와 필연성 속에서 그 존재의 사고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결코 생명의 파멸을 의미하거나 죽음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과정에서 죽음과 화해하고, 삶을 통해 죽음의 의미와 마주하여, 삶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2.2 필연적인 죽음과 인간의 자유

실존주의에서 죽음의 또 다른 목표는 죽음의 필연성에서 출발하여 인생의 의미를

Copyright ⓒ 2023 KCTRS

찾고, 삶의 자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죽음 위에서 진실한 생존의 의미가 자각되고, 죽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반드시 독립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감당해야 하고, 죽음에 직면한 상태가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 사르트르는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르트르는 죽음이 비록 필연적이지만, 그 발생은 극히 큰 우연성으로 가득하다고 여겼다. 생명과 무생명의 교차점에 있는 죽음은 “인류 생활의 결말”로서 일종의 “무생명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의 상태는 생명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존재와 무>에서 그는 무로서의 인생과 삶의 자유, 능동성 그리고 죽음에 대해 논술하였다. 사르트르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이며 본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의 추이와 생명의 활동에 따라 자신을 선택하고 규범화하며 성취함으로써 존재와 본질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여 삶을 개척한다고 하였다. 죽음은 생존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죽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은 일종의 “종결”로서 나의 가능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이 나타났을 때 “생”으로서의 내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나는 죽기 위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죽어야 자유로운 사람”[4]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자유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가 강조하는 자유의 중심은 죽음과 존재의 관계에 있다. 이는 죽음을 통해 역으로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진실하지 않은 존재”와 “진실한 존재”라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세상에 침몰하는 존재이며, 개인의 상실을 의미한다. 후자는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무한한 창조력과 자유를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5]. “죽음을 향해 자유롭게”라는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생명은 “진짜가 아닌 존재”에서 진정한 인간의 존재를 실현하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죽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6]. 인간이 무한히 죽음의 상태에 접근하면, 유한한 삶의 혼돈에서 벗어나 삶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의 도래가 느껴질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초월”이 가능해진다. 죽음은 비록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 귀속에 해당하지만,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는 “자신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한다[7]. 즉, 죽음의 경고를 통해, “앞선 죽음 속”에 나타난 자신의 존재를 포착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며, 현존하는 나의 생명력을 나타냄으로써, 생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자유로운 존재에 이르게 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관점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통해 인생의 자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고, 삶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규정성을 가지고 싶은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자유로운 설계의 결과이다.” 즉, 실존주의가 죽음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이상을 탐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실존주의에서 죽음에 대한 원칙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그 취지는 인간을 이성 혹은 물화의 존재로 환원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8].” 실존주의 이론에서 우리는 죽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Copyright ⓒ 2023 KCTRS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첫째, 그는 죽음을 본래의 “존재”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그는 인간의 존재는 개체적이고 주관적이며,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연의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자아를 잊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오직 죽음만이 “여기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개별화”함으로써, “본래 그 자신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그는 “죽음의 개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죽음이 가장 원시적 자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본래의 속성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에서 가장 개인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개체의 죽음은 개체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드러내기 때문이다.

생사 철학의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 영역에서 자신의 평가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 철학 사상은 죽음에 깊은 도덕성과 사회적 차원을 부여했으며, 특히 전통 유교의 사상에서는 인, 의, 예, 지, 신의 차원을 중시하여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했다. “사생취의(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살신성인” 등의 개념도 중국 사상에서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철학에서도 죽음의 개념과 의미는 정의, 선량, 윤리 등의 개념과 서로 보완된다. 이에 비해 실존주의는 죽음의 주체성과 개체성을 더욱 강조하는데,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3. 톨스토이의 실존주의 생사관

톨스토이의 생명 문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그의 일생을 관통했다. 실존주의 생사관에서 톨스토이의 삶과 죽음에 관한 탐색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어 왔다. 톨스토이의 생사관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생명의 모순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3.1 생명의 모순

톨스토이 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본질은 모두 선량한 것이다.”라는 그의 이론 체계는 인간의 본성은 모두 선을 지향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지만, 동시에 인성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쉽게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톨스토이가 보기에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로 인해 “악”이 자생한다고 보았다.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부의 환경을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생명은 모순을 가지게 하고, 생명과 또 다른 타인의 생명 속에서 충돌과 모순을 발생시킨다. 즉, 삶과 죽음의 모순에 기반한 탐색이 바로 톨스토이의 죽음과 그 죽음에 직면한 태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도 한다.

3.1.1 의식의 이중성

톨스토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명을 해석함으로써 인간이 이중성을 가졌음을 발견했다. 그는 인간은 두 가지의 “나”를 포함하며, 하나는 생물학적 “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사고의 주체로서 “나”라고 보았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나”는 동시에 이중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우리 몸에 두 가지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가 내적 의식을 통해 인식하는 정신적 생명과 우리가 외부 관찰을

Copyright ⓒ 2023 KCTRS

통해 인식하는 육체적 생명이다[9].”

나아가 톨스토이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은 모두 선과 악의 결합체로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는 사람을 선량하고, 흉악하며, 어리석고, 똑똑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사람은 유동적이며, 그에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전에는 어리석었다가 후에 현명해진다. 또는 흉악했다가 선량해지거나 혹은 정반대가 될 수 도 있다[10]”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생물성 혹은 이성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중의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인간의 외적인 표현은 의식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부정적 인간의 의식은 공포, 탐욕, 말살 등을 야기하지만, 반대로 이성적인 의식은 생명을 통해 사랑의 감정, 선의 신념, 생의 희망을 갖게 만든다고 하였다.

3.1.2 타인과 생명의 모순

인간의 생명은 모든 독립된 주체들을 통해 그 존재가 감지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11].”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야 말로 진정한 생명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생명이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존재하는 다른 인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인간의 생명을 나의 생명에 비유할 뿐이다. 인간은 환경과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생명의 존재를 인식한다. 때문에 개인이 이성적 의식을 통해 인식할 때 타인의 생명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환경 속의 다른 생명은 자아의 생명과 존재로 인식하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인 것이다.

주체는 환경과 주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감지한다. 즉 인간의 생명은 이성적 의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이 지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 속의 다른 생명은 나에 의해 존재로서 인정되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은 생명에 대한 관찰을 통해 타인이 자신과 같은 이성적 사고가 가능함을 인지하게 된다. 삶은 희망이고, 인간은 이성과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생명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인간은 환경 속에서 다른 인간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인지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근원, 원천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의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선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행복이 자신의 완벽한 목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행복이 달성되기를 바라지만,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행복 추구가 어느 정도 타인의 행복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장애가 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타인의 행복,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1.3 삶과 죽음의 모순성

톨스토이는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으로 나누었다. 그는 육체적 생명을 생물적 생명으로, 그리고 정신적 생명을 이성적 사상의 생명, 즉, 진정한 개체의

Copyright ⓒ 2023 KCTRS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육체적 죽음을 단지 신체에 대한 파멸일 뿐이며, 이러한 현상으로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세계를 보는 태도를 진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톨스토이는 생명의 종결을 자살과 자연법칙으로 인한 생명의 종말,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한 희생 등 세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했다. 자살의 방식을 통해 생명을 끝내는 행위에 대한 비관주자와 자살론자의 견해에 대해 톨스토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관론자와 자살론자의 생명에 대한 행위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연의 규칙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이 끝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죽음이 생명의 종식으로써 필연적인 슬픔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모순성이 결정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평온한 태도를 주장했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평온하고 좋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으며, 두렵지도 않았다[12]”고 밝힌 바 있다. 타인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죽음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것이 세계를 대하는 이성의 태도라고 여기며, 심지어 이런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그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여겼다. 그는 “생명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고, 생명의 운동은 새롭고 가장 높은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은 새로운 태도로 진입하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3.2 인생의 목적과 의미

생명의 모순에 대한 톨스토이의 탐구는 그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톨스토이는 노년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명제를 제시한 <인생론, (LEO TOLSTOY/ON LIFE)>을 통해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억과 영생을 갈구하는 영혼”이라고 밝혔다[14]. 이러한 명제는 톨스토이가 일생동안 장기적으로 탐구한 결과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죽음관의 변화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결론을 얻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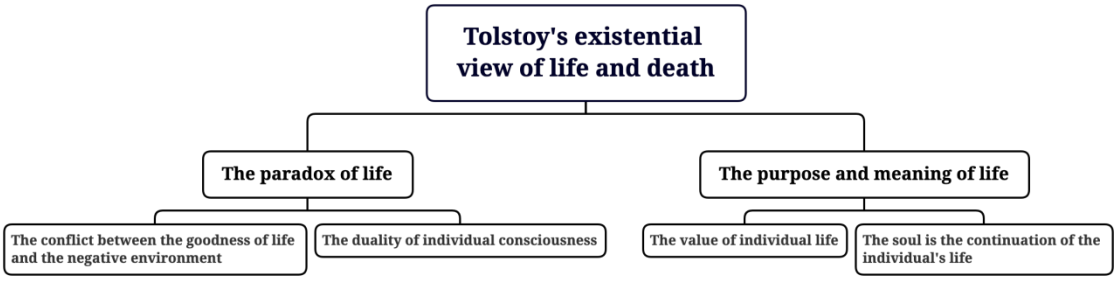
3.2.1 죽음관의 변화

톨스토이의 창작 초기, 그는 죽음을 생을 마감하는 공포의 사물로 여겼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소설 <전쟁과 평화, (Война и мир)>에서 그는 많은 전쟁에서 피투성이가 된 장면을 묘사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었다. 죽음에 대한 초기 탐구는 톨스토이로 하여금 생명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그가 인정하는 죽음관은 독실한 신자와 순박한 노동자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태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죽음 문제에 대한 그의 묘사와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탐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어떻게 생명과 개인 생활을 이해하고 의미를 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소설 <세 죽음, (Трисмерти, Tri smerti)>에서 다룬 죽음에 대한 묘사는 이 시기 그가 지닌 생사관을 보여준다. 한 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죽음의 방식은 톨스토이 이념 속 “진실”의 구현이며, 자연스럽고

Copyright ⓒ 2023 KCTRS

조화로운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연 속에 있어야 하고 그것과 결합해야 한다. 마부의 죽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담담한 정상인의 자각을 나타낸다. 그는 죽기 전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바로 이런 일이다[15]”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초월한 죽음관을 의미한다.



[그림 1] 톨스토이의 실존주의적 생사관

[Fig. 1] Tolstoy's Existential View of Life and Death

톨스토이의 창작 후기 단계에서 그는 박애, 동정 그리고 용서 등의 감정을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소설 <인생의 길, (Road of life)>에서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당신의 육체가 당신을 대신해 기대하는 일을 한다. 즉, 명예, 명망, 부를 추구하면, 당신의 생활은 지옥과 같을 것이다. 당신에게 존재하는 영혼을 기대하는 일들 즉 겸손, 인자함, 사람을 추구하면, 당신은 그 어떠한 천국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당신의 영혼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톨스토이의 죽음관을 설명할 수 있다[16]. 죽음은 인간과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죽음관과 일치한다.

3.2.2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탐구

일생 동안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명제를 탐구해온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자신의 사상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의 완비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싶은 소망으로 빠르게 대체된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하며, 더 부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년시기, 그의 목적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완벽에 대한 추구는 이미 일반적인 완벽과 발전에 대한 추구로 대체되었고, 지금은 노골적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말년에 들어선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이 목적과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이 멈췄다고 생각했다. 그는 생명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느꼈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자살로 유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삶과 죽음의 모순에 처해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삶의 답을 찾았다. 그는 최하층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대부분들이 직접 노동을 통해 가난한 삶을 이어갔지만, 그들에게서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생활과 신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공동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생명의 의미라고 느꼈다. 설사 죽음으로 인해 육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창조한 가치와

Copyright ⓒ 2023 KCTRS

정신은 다른 이들에 의해 남겨진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구현이다. 기억과 그리움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즉, 생명의 소멸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와 연결된 생명의 의미를 이어받아 지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삶의 최종 의미라는 것이다.

4. <코코>에 나타난 죽음의 상상과 생명의 구원

멕시코 망령제에서 영감을 받은 <코코>는 음악을 사랑하는 미구엘과 초라한 악사 헥토르가 “죽음의 세계”에서 펼치는 기묘한 여행을 그려내고 있다. 꿈과 아쉬움, 곤경과 현실, 사랑과 견지…. 이러한 요소들은 <코코>에서 공동으로 융합되어 관중들에게 생명이 지닌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즉 철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생명, 가족, 기억 그리고 사랑을 집약한 이 작품은 풍부하고 역동적인 멕시코에서의 삶과 죽음의 모순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 있다. “기억”과 “전승”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생명의 존재 형식을 탐구하고 인문학적 정서와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1 회상과 망각: 생명의 허무함

죽음에 대한 탐구는 본 영화의 핵심에 해당한다. ‘망자의 날’이 되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 이날이 되면 가정에서는 제단을 마련하고 조상들의 초상화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황금빛의 금잔화 꽃잎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고, 죽은 영혼들은 이 꽃길을 따라 지상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 속에서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깊은 '죽음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의문을 던진다. 육체적인 죽음은 신체의 정지이며, 실제적인 죽음은 죽음의 궁극적인 형태인 망각이라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개인의 마지막 흔적도 사라지게 되고, 개인이 존재했다는 증거와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사진은 일종의 기억의 방식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한다. 영화 속 제단의 사진은 영혼들이 이승 세계로 가는 통행증에 해당한다. 영화에서는 이처럼 기억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 <코코>의 포스터

[Fig. 2] Poster of <Coco>

Copyright ⓒ 2023 KCTRS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절대적인 허무로 이해하고, 죽음을 생명의 완전한 종결로 본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견해가 감성과 지성에 근거한다는 어떠한 확실한 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순수한 상상이나 가설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이러한 죽음의 관념 속에서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17].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의 의식에 대한 각성은 심각한 심리적 재난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한 생명의 허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긍정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삶에 대한 열정을 잃게 한다.

분명히 죽음은 미지의 것이지만, 죽음에 대한 견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결정하고 인간의 생존 방식을 구성한다. 생명에 대한 허무감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의미를 더욱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만일 기존의 한계를 넘어 삶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그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삶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4.2 영혼 불멸 이론에서의 생명 불멸

죽음에 대한 모든 견해는 가정이기에, 이것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뿐이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명관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톨스토이는 이점을 의식했다. 그는 인간의 절망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삶의 무의미한 허상을 사라지게 하는 생명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18]. 이와 같은 관점은 사르트르 그리고 카뮈의 실존주의 생사관과 일치하며, 마찬가지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핵심 개념을 강조한다.

만약에 죽음이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재 형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죽음과 영혼의 정신적 가치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종결하고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은 이로부터 삶에 직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가정과 죽음에 대한 상상이 바로 영혼 불멸에 대한 개념이며, 영혼 불멸의 개념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과 신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3] <코코>의 망자

[Fig. 3] A Death from <Coco>

<코코>에서 헥토르는 죽음의 세상에 빠진 미구엘을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고자 노력한다. 이때 코코는 생명에 종착점에 이르러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영화에서는 인간 기억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억은 삶에 대한 회고록이고, 자의식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인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목격하는 것도 톨스토이가 반복적으로 논술한

Copyright ⓒ 2023 KCTRS

“영혼 불멸론”이 지닌 핵심 관점의 구현인 것이다.

4.3 기억-생명의 구원과 전승

시대의 기억, 가족의 기억, 개인의 기억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 모든 기억은 그 독특한 의미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생명과 영혼을 연결한다. 톨스토이의 이론에서 사람의 정신은 생명과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물질세계의 물건들에 비해 기억은 생명의 전달자로서 독립적이며, 자유롭다. 설사 신체의 죽음으로 생명의 종말이 초래되더라도 영혼의 기억은 여전히 정신 속에 깃들어 있다.

영화 <코코>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세대 간 교체에 따라 기억이 결국 소실될 것을 인정하면서 강조한다. 죽은 자들은 현실 세계 속 사람들의 기억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 기억의 단방향성은 약화되지만, 기억이 흩어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코>에서 완성된 것은 생명의 의미에 대한 해독이다. 죽음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이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종착점, 또는 미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픽사의 영화에서는 성장과 꿈, 감정과 의존, 현실과 환경에 대한 주제와 함께 현재에 대한 관조를 포함하고 있다. <코코>는 디즈니와 픽사가 손잡은 이후, 일관되게 픽사의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영감과 철학적 사변, 디즈니의 몽환적인 동화적 스토리, 그리고 가족과 꿈의 웅장한 망령세계로 전개해나갔다. 영화에서 죽음은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화제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고인이 된 가족의 사진을 통해 그들을 찾는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추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살아있음”과 “존재”의 구별,“가족”과 “꿈”의 모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된다. 결국 이 작품은 죽음을 앎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사고와 생명의 길에 대한 탐구는 죽음에 대한 상상을 기초로 삶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인류는 결국 죽음의 필연성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사이의 첨예한 모순 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기억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억은 일종의 전승 방식으로 생명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물질세계에서의 변천에 해당할 뿐이고, 영혼의 전승과 기억이야말로 생명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혼의 신앙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본능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복종하는 동물과 구별되며, 생명의 가치와 의미라는 문제가 성립될 수 있는 전제의 기초이다. 모든 사람은 이 천부적 자유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사고하며, 자신의 사고에 따라 현재의 생활을 이어간다. 생명은 죽음이 각성된 후, 생명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다가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바로 생명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Copyright ⓒ 2023 KCTRS

References

[1] Gelven Michael, A Commentary n Heidegger’s Being and Time Reved, Northen Illinois Universitv Press, pp.124-143, (1989)

[2] Li Zhangyin, Heidegger's repeatedly misunderstood Concept of Death, Nanjing Social Sciences, (2018),Vol.4, p.78.

[3] Wu Xingyong, On Life and Death,Wuhan: Hubei People's Publishing House, p.12, (2006)

[4] Sartre, Being and Nothingness, Translated by Chen Xuanliang, Shanghai: Sanlian Bookstore, pp.24-70, (1987)

[5] Liu Yibiao, The Problem of Death in Existence and Time, Sichuan University, p.5, (2007)

[6] Duan Dezhi, Western Philosophy of Death,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p.239, (2006)

[7] Heidegger, Existence and Time, Chen Jiaying, Wang Qingjie, translated, Shanghai: Sanlian Bookstore, p.68, (1987)

[8] Zhang Xianyun, Existentialism, French "New Wave" and Chinese Sixth Generation Film, Journal of Anhui Normal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ition), (2011), p.21.

[9] Leo Tolstoy, Collected Works of Leo Tolstoy: Volume 17,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00)

[10] Leo Tolstoy, Collected Works of Leo Tolstoy: Volume 15,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00)

[11] Hongmei Zhang, Interpreting the Paradoxical and Ideal Tolstoyism with Resurrection, New Documentary, p.15, (2022)

[12] Sun Shaozhen, Spiritual Resurrection in the dislocation of characters' Emotions - An Analysis of Tolstoy's Resurrection, Language Construction, pp.71-74, (2022)

[13] Leo Tolstoy, Collected Works of Leo Tolstoy: Volume 12, Beijing: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2000)

[14] Leo Tolstoy, On Life, Chinese translation, Beijing: Tuanjie Press,(2004)

[15] Leo Tolstoy, Three Deaths: Selected Short Stories by Tolstoy, Translated by Zang Zhonglun, Zhang Er, Jin Ge, Shanghai: Sanlian Bookstore, (2014)

[16] Leo Tolstoy, The Road to Life, Wang Zhigeng, translated. Beijing: China Renmin University Press, p.30, (2006)

[17] Zhao Shankui,The Death of Ivan Ilyich from the Perspective of Ontology, Journal of Nanjing Normal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02), No.3, p.22.

[18] Zhang Xiaowen, Existence Towards Death - The Death of Ivan Ilyich by Leo Tolstoy, Chinese Journal, (2009), p.8.

Copyright ⓒ 2023 KCTRS